

[에버렛 스완슨이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3-12-07

와이오밍주 파인 블러프(Pine Bluffs, Wyoming)

가난한 한국 사람들의 친구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평강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저희는 저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1-5)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나 부유합니까! 심지어 가장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한국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유혈 사태가 잠잠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선교사, 목사, 전도자, 교목/군목들에게 훨씬 더 큰 자유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매달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추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한국에서 이러한 큰 필요와 엄청난 기회를 위해 매달 충실하게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물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선물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고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지소년 보육원을 위한 기금이 모두 들어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고 잘 지어진 건물이 될 것이며, 완공되는 즉시 이 가난한 거지 소년들 중 50 명에게 진정한 기독교 가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용으로는 3,500 달러, 그리고 토지 비용 250 달러와 채소를 재배할 토지 비용 500 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둘째, 현재 81개 기독교 서점이 한국 전역에 걸쳐 놀라운 사역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전임 전도사가 이 서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셋째, 8월에 12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격월지 ¹<승리자 예수(Jesus is Victor)>가 60,000부 인쇄되었고, 한국의 모든 목사, 전도사, 교목/군목,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요 프로젝트 외에도 대구에 있는 부흥협회 센터(Revival Center)를 구입하고, 최전방 근처에 또 다른 보육원을 짓고, 많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 상당한 기금이 보내졌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독히도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옷을 기독교 신앙 간증을 담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본에서 엘시 펑크(Miss Elsie Funk) 양을 위해 작은 영국산 포드(Ford)를 구입하는 프로젝트가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1,700달러). 그 이후로 저는 너그러운 기독교인들 덕분에 알래스카에 있는 시티 뷰 교회(City View Church)를 위해 600달러 이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교사업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제 본업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셨습니다. 저는 올해가 저의 고향에서의 전도사역에서 가장 큰 결실을 맺은 해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개종했고, 수백 명의 배교자들이 돌아왔고, 수많은 가정 예배가 세워졌고,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며, 흡연자들이 회개했고, 술주정뱅이들이 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소가 변경된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저희는 3 월 1 일까지 이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3 년 동안 임대할 곳을 찾았지만, 항상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임대료가 비싸거나, 4 명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낡은 집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10 월 16 일) 가슴이 아팠던 바로 그때 합리적인 가격에 저희의 필요를 채워줄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금으로 낼 돈이 단 1 달러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3 개의 은행과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겨우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아내가 근처 공장에 출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아내마저 아이들과 떨어져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¹<승리자 예수(Jesus is Victor)>: 로버트 라이스 선교사가 1953년 대구에서 문서출판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문서출판운동 중 처음 출판한 팸플릿(<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3375>).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공평하지도 않고 옳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집이 마련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엄마를 매우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소 변경에 맞춰서 내년도 한국 사역을 위한 월 기부금을 더욱 편리하게 정기적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주소가 인쇄된 봉투 12 개를 동봉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기에 밀린 후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서약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봉투를 반납하여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초부터 분기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버렛 F. 스완슨 올림